

‘표현의 자유’ 위해 흘린 피, 문화수도로 꽃피우다



생 제르맹 데프레 성당 건너편의 디드로 동상. 대표적 계몽주의 사상가로 공화국 설립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센느 강변 프랑스 학사원의 옆에 놓인 공화국의 여신 동상. 이 조각에는 공화국의 상징들이 숨어 있다.

세계의 문화수도 파리 오디세이

—(18)—
파리와 공화국

독일 철학자 발터 벤야민은 파리를 '19세기의 수도'라고 했다. 그는 왜 파리보다 더 근대화가 일찍 이뤄졌던 런던을 제치고 파리에 방점을 찍었을까. 발터 벤야민은 사치품 거래의 중심이었던 아케이드, 기술과 예술 사이의 영원한 투쟁을 촉발한 철골 건축, 회화에서 파노라마의 등장, 오락 산업인 박람회와 대성공, 개인의 우주인 실내 공간의 부상, 도시를 서정시의 대상으로 삼은 보들레르, 바리케이드 설치를 불가능케 한 오스만식 도시 개조 등을 키워드로 19세기 파리를 집중 해부했다.

발터 벤야민의 연구서 '파리의 원 풍경'을 번역한 조형준씨는 "산업혁명이 잘 보여주듯이 세계 자본주의의 '모범생'인 런던이 제국주의로서도 선두 주자였다면 프랑스 혁명으로

건축·문학·예술... 투쟁 통해 정체성 완성

정치 역동성 세계가 주목 '19C 수도' 불려

판테옹 벽 루소, 센느강변 볼테르·여신상

도심 곳곳 영웅들 조각상 따라 역사 순례

대변되는 정치 혁명의 선두 주자인 파리는 유럽식 자본주의의 옹공로이자 '문제'였다고 진단한다. 경제적 풍부함보다는 정치적 역동성이 파리를 세계로부터 주목 받게 했다는 것이다. 건축, 문학, 예술 등 모든 분야가 앞만 보고 달려가 발전을 이룩한 것이 아니라 치열한 투쟁을 통해 파리의 정체성을 완성했다. 그 정점에 대혁명 이후 몇 번의 부침에도 끝내 이룩해낸 파리지역의 자부심, 공화국이 있다.

파리 시내를 산책하며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동상 중에는 공화국의 영웅들이 많다. 이들의 흔적을 따라 순례를 떠나보자. 출발은 '공화국의 사원'으로 불리는 생 주느비에르 언덕 위의 판테옹이 적당하다. 혁명 발발 이전에 성당으로 짓기 위해 건축을 시작했으나 1790년 완공회 혁명 세력에 의해 최상급 '국립묘지'로 쓰이는 지금의 용도로 쓰이게 됐다.

판테옹의 돔 아래 정면 벽 부조는 조각가 다비드 당계의 작품이다. 작품 안에는 혁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말레르브, 미라보, 페넬롱, 라파예트, 볼테르, 루소 등이 등장한다. 중앙에 위치한 공화국 여신의 오른편, 황제가 되기 전의 나폴레옹이 군사들을 이끄는 모습의 조각이 눈에 띈다. 1837년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라파예트의 조각을 들어내려고 시도했으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조각가의 강력한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부조 아래에는 '위대한 이들에게 조국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친다'는 문구가 쓰여있다.

판테옹 광장 오른쪽에는 '사회계약론' 등의 저서를 통해 이상의 시대를 활짝 열고 혁명 세력에게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 루소의 조각상이 서 있다. 1889년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세워졌으나 제2차 세계대전 때 파괴된 것을 파리가 1952년에 원래의 초석 위에 다시 세웠다. 판테옹이 있는 생 주느비에르 언덕 아래 5분 거리의 소르본느 광장에는 실증주의의 창시자인 오귀스트 콩트의 조각상이 있다. 사회학을 하나의 과학으로 접근해 제3공화국 설립에 기여한 콩트가 지성의 본산 앞 마당에 있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 조각

상이 설립된 것은 1902년인데 이 광장은 콩트가 대학 시절에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

극장가 바, 카페가 밀집해 있고, 소르본느 대학과 가까워 대학생들 비롯한 젊은이들로 항상 북적대는 오데옹 광장에서는 당통의 조각상을 만날 수 있다. 오른손을 허공에 내지르며 웅변을 하고 있는 당통, 그리고 각각 북과 춤을 든 시민군들이 양쪽에서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다. 예술가들의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돼 1891년 설치됐다. 1870년 출범한 제3공화국은 대혁명의 100주년이었다 1889년을 전후해 파리 시내에 혁명을 기념하는 조각들을 다수 제작했다. 당통이 살았던 곳도, 1794년 반대파에 의해 숙청되기 전 체포된 곳도 동상의 근처다.

오데옹 광장을 가로지르는 생-제르맹 대로로 따라 가다 생-제르맹-데프레 성당의 맞은 편에, 펜을 쥐고 엉거주춤 허리를 숙여 먼 곳을 응시하는 디드로의 조각상과 맞닿는다. 혁명 이전인 1784년 사망했지만 혁명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계몽주의 철학자의 대표 인물이다. 조각상은 그의 사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884년 설립의 뜻을 모으고 1886년 세웠다. 제3공화국은 신권에 대항하는 것으로 간주돼 당시로서는 금기시됐던 백과사전 편찬에 평생을 바친 계몽사상가를 프랑스 공화국의 선구자로 본 것이다.

디드로 동상에서 생-제르맹 대로로 건너 센느 강변으로 조금만 걸으면 공화국의 선구자로 빠져서는 안 될 이름, 볼테르가 나온다. 광장이라고 부르기에 다소 민망한 장소에 유약해 보이는 볼테르 조각상이 서 있다. 판테옹에까지 묻힌 위인의 조각치고는 조각의 외양이나 장소 모두 웅장하지 않다. 제3공화국이던 1885년 제작된 볼테르 조각은 프랑스 학사원 옆 센느 강변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파괴되고 말았다. 전쟁 이후 곧바로 제작에 들어가 새 볼테르의 조각이 완성됐으나 원래의 자리로 가지 못했다. 위치 선정 논란으로 허송세월을 한참 한 뒤, 1962년 에야 학사원 뒤편 골목길의 공터에 자리를 잡았다. 전에 있던 조각에 비해 초라하고 아름답지 않다는 이유였다. 조각상을 놓고 감탄을 발하는 동안 정작 조각가는 제작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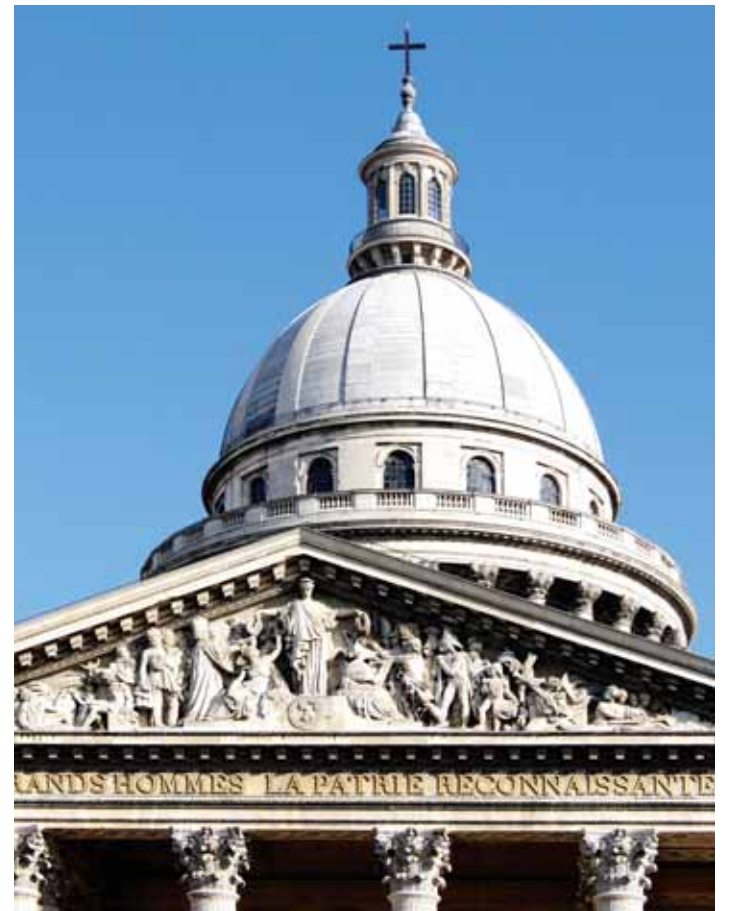
원래 볼테르의 조각이 있던 '명당'에는 공화국의 여신이 들어섰다. 센느 강이 한 눈에 들어오고 바로 앞에는 도보 전용다리인 콩테자크(예술의 다리)가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제2공화국의 탄생을 알린 1848년 2월 혁명 직후 정부는 공화국의 상징할 조각, 이미지 등에 대한 공개경쟁을 실시했다. 선정된 조각은 프랑스 최고의 학술기관인 학사원 앞에 1880년 설립됐다. 이후 1962년부터 1988년까지 프랑스 중부 소도시 앙부아즈에 세워져 있다가 1992년 지금의 위치로 자리를 옮겼다. 이 조각은 공화국을 상징하는 많은 은유들을 숨기고 있다. 왼손 아래에 놓인 깨진 왕관으로 묶인 무기 다발은 혁명의 가치와 자유를, 오른손에 들린 검과 삼각형은 정의와 평등을, 머리에 쓰고 있는 락탈나무 잎 화관은 이성과 지혜를 각각 나타낸다. 넓은 주름치마와 근엄한 태도는 민중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의 이미지를 고전주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더 근사하고 커다란 공화국의 여신은 레퀴블리 광장의 한 가운데 놓여 있다.

판테옹 광장의 루소, 소르본느 광장의 오귀스트 콩트, 오데옹 광장의 당통... 공화국을 상징하는 인물이 상징적인 장소에 놓여있다. 조각상 하나하나 스토리를 가진 별개의 작품일 테지만, 모두를 하나로 묶어 집합체로 볼 때 의미가 더 커 보인다. 조각들 사이를 산책하며 파리지역이 공화국을 대하는 방식의 단면도 엿볼 수 있다. 파리에서 수많은 예술인들이 활발하게 작품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격변을 지나면서 얻어낸 '표현의 자유'가 있어 가능했다. 파리를 '19세기의 수도' 또는 '세계의 문화수도'로 인정한다면, 그 공은 공화국을 위해 흘린 피와 이를 기억하는 파리지역에게 가야할 것이다.

<끝>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파리=정성필 객원기자
sphijeong@gmail.com



판테옹 정면에 조각된 부조. 공화국의 여신 원편에는 혁명에 영향을 준 프랑스 위인들이, 오른편에는 군사를 이끌고 있는 나폴레옹이 새겨져 있다.



소르본느 광장에 있는 오귀스트 콩트 동상. '사회학'의 창시자 콩트는 제3공화국 출범에 기여했다.

3만원으로 떠나는 제주도여행

매일 광주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로 목포항까지 편안하게!
국내최대 씨스타크루즈호 타고 제주까지 안전하게~3만원으로 떠나세요.

광주⇄목포 셔틀버스 + 씨스타크루즈호

광주출발 06:40 광천터미널 맞은편
목포출발 21:30 여객터미널 주차장

※1인 편도요금이며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씨스타크루즈호

2013년

선상해맞이 축제

고객감사할인

20,000원...→ 10,000원

선착순 45명 전화문의만 받습니다.

광주출도착 제주도 2박3일 **139,000원**

1일자 도두봉 트래킹, 응두암 용연, 노을언덕 무인카페

2일자 오설록, 생각하는 정원, 서커스월드, (현지직불)서귀포유람선, 롯데호텔정원, 올레길

3일자 선녀와 나무꾼, (현지직불) 몽골리안미상소 or 매직쇼, 조랑말 승마체험, 제주허브동산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 셔틀버스, 왕복선박료, TAX, 차량, 일반호텔(5-6인실), 일정표내 입장료, 식사(중식2회,조식2회)
불포함사항: 가이드 팁, 개인비용, 현지직불관광, 자유석식

금, 토 출발시 20,000원 추가 / 2인실 이용시 30,000원 추가

씨월드 고속훼리(주) 우수대리점. 제주배닷컴 www.jeube.com 1644-2261